



2020년 8월 25일
천주교사이타마교구 주교
마리오 야마노우치 미치아키

코로나 19의 감염확대에 대한 교구의 대응에 대해(제 11 차)

주일미사의 단계적 재개로 부터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신중히 미사재개의 준비를 해온 일부 교회도 9 월제 1 주부터 미사가 시작됩니다. 하느님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염확대의 두 번째 고비의 정점을 넘었을 지도 모른다고 보도되어지는 이 시점에, 제 11 차 교구의 대응을 발표 전에 사제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교구로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대응을 한 달간 더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령제한의 해제의 가능성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해제는 무리라 판단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큰 희생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이신 분들과 함께 교구내의 모든 교회에서, 이전과 같이 안심하고 주일미사를 드리고, 성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으며, 방심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인내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9 월 30 일까지, 기본적으로 「대응 10 차」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하의 변경을 실행합니다.

1. 토요일 거행되는 「특전미사」의 공개를 허가 합니다.
또한, 일본어미사, 혹은 국제미사로서 거행하여주시시오.
2. 부활절에 예정되어 있던 영세식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감염예방대책을 철저히 하신 후에 거행하여 주십시오.
3. 각 수도원, 수도원 내의 성당에서 거행되는 평일미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주의를 하신 후에 거행하시는 조건으로, 미사 공개의 판단은 수도원장님께 일임합니다.

(추신) 9 월부터 매월 시작 즈음에 한 번, 교구장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교구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또한, 각 성당의 미사의 인터넷중계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광고위원회에서, 새 가이드라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베 · 마리아 !